

Live Stylish

luel

2010년 문화체육관광부 선정
우수 콘텐츠 잡지

I'M BACK

6대의 모터사이클에
올라탄 섹시 보디라인

롤스로이스 고스트를 탈 때와
벤들리 플라잉 스피드를 탈 때
누드로 전하는 7개의 메시지
11인의 디자이너가 스케치한
황홀한 순간
골프의 고정관념을 뒤흔드는
원조 링크스 코스 순례기
BMW 535i vs. 아우디 A6
3.0T vs. 인피니티 M37
비교 시승기

GONE WITH THE WILD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미국
야생의 풍경과
접속하는 캠핑의
최전선 12



IOANNES
STEPH · FIL · LABY
IVRISCONSVLT
CVLTOR · ANTIQVIT
GIROLAMO
PANZETTA
일본을 뒤흔든
(제왕)의 아이콘이자
'실막 나쁜' 아저씨
ADIBVS · E X PRV
AETIS · EXPLIC
RONTE · ADORN

ALL ABOUT

ITALIAN STYLE

2011 S/S 피타 워모에서
포착한 클래식 아이콘 35
집중 분석 & 이탈리아
남자들의 일상에서 건져
올린 리얼 스타일 화보

SEPTEMBER 2010 / 8,000원





클래식 수트의 생장점

밀라노, 피렌체, 로마, 나폴리에만 고유의 수트가 있는 건 아니다. 이탈리아 풀리아주의 풀리에제 사르토리아는 감각적인 아이디어를 획기적이지만 클래식의 도를 넘지 않는 옷을 만든다. 바로 그 브랜드 '사맛'을 만든 클래식 복식의 차세대 스타 발렌티노 리치를 만났다.

에디터 송현석 포토그래피 최선혜

산 업 기반이 있는 북부와 자연환경을 주로 이용한 남부의 역사적인 갈등으로도 잘 알려져 있는 이탈리아는 요즘이야 그런 지역감정이 줄어들고 있다고는 하지만, 예전에는 한국보다 훨씬 더 강하게 대립했다. 변호관에 지역영이 들어간 사람에는 주차권 다른 지역 자동차가 하룻밤도 무시하지 못할 정도였고, 라이벌 도시끼리의 축구 경기는 현대적인 전쟁과 다를 바 없었다. 아직도 나폴리나 사실리 같은 남부 지방의 물가는 피렌체나 밀라노보다 2할 이상 싸고, 아말피와 포지타노처럼 아름다운 휴양지를 가진 나폴리가 동시에 소매치기의 본산으로 여겨진다는 역설처럼, 북부와 남부는 서로 다른 국가처럼 존재한다. 그래서 패션 비즈니스의 중심지 밀라노와 이탈리아 문화의 위대한 생산자 코르넬리 세계적인 명성을 가진 데 비해 아직 남부 이탈리아는 관광지로 더 알려져 있을 따름이다. 물론 수프와 구두, 셔츠와 타이 등 수제품을 만드는 테크닉이 피렌체나 나폴리에서 탄생한 체사레 아틀리나와 키톤, 보렐리 등은 남부의 위대한 제품들이지만, 그들은 전통적으로 핸드메이드 기술과 레토리 프로세스를 결합한 현대적인 브랜드로 족적을 남기고 있다. 공예품을 시스템화한 그런 브랜드의 무게도 상당하지만, 이렇게 미래가 예측되지 않는 세상에서는 규모가 작더라도 전통적인 기술을 유지하는 사르토리야처럼 모든 것의 근원을 생각해볼게 된다. 그래서 런던의 헌츠먼, 파렌체의 리버리노나 남서부 이탈리아 비몬토 지방의 사맛과 같은 사르토리야들은 남부쪽의 고창과도 같은 기분을 준다. 리치에게 아직은 생소한 비몬토(BiMonte)는 이탈리아 남부 바리(Bari) 지역의 작은 도시로 '올리브 도시'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을 만큼, 알이 굵고 맛있는 올리브를 생산하는 곳이다. 인구가 5만6000밖에 안 되니 특별한 여행소개서에도 잘 나오지 않는다. 오히려 그 도시가 알려진 것은 오너 테일러 발렌티노 리치가 일한 이탈리아 비스포크 사르토리야 '사맛(Sciamat)' 때문이라고 하였다. 발렌티노 리치는 사맛이라는 브랜드의 차용이자 마자카이며, 젊은 감각으로 전통적인 클래식 수트의 지평을 두 박자 정도 넓히고 있는 차세대 스타다. 미디어에서 확인되는 그의 스타일도 놀라운 수준이지만, 사맛의 미래가 더욱 매력적인 것은 그가 사재를 초월하는 신사의 스타일을 추구하는 젊은 경영자인 동시에 스스로 전통을 잊지 않는 사르토리야의 정이다. 브랜드의 소유주이자 경영 부-경영진자가 직접 자신의 제품과 그 옷을 입는 그들을 정확하게 이해하면서 비즈니스를 한다면 필요한 형식과 마케팅을 배제한 채 오로지 자신이 추구하는 궁극의 목적을 향해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준다. 비몬토 마치 여성의 블라우스처럼 유니크하게 웃은 비몬토인과 외인잔을 달은 피치 포켓이 대표적인 특징이다. 클래식 수트가 스트레이프하고 보수적인 테일러라는 고정관념을 기분 좋게 깨뜨려주는 청량한 스타일이라고 하였다. 다만 그들은 놀랄도록 젊다. 사맛의 테일러이자 오너인 발렌티노 리치는 1969년생으로 테일러 맞춤복 업계 기준으로 본다면 상대적으로 젊고, 그를 돕는 친구들과 동생 니콜라 리치 테일러 사르토리야의 작업자들도 테크닉션 특유의

고집스럽고 노쇠한 이미지와는 거리가 멀다. 말하자면 사맛을 만드는 사람들은 매우 젊지만 몸위 있게 말하고 천천히 걸으며, 때로는 유쾌한 농담으로 주변을 배려하는 현대적인 귀족을 닮고 할까. 발렌티노 리치의 열레강스는 그와 함께 나는 속 깊은 대화와 프로페셔널한 맞춤 과정 그리고 아름다운 디너 내내 사그라지지 않았다.

직접 공방까지 작업을 나오다니 놀랐어요. 당신이 피티 워모에서 배리를 꼭 방문하겠다는 약속을 지킨 게 더 고마운 일이지, 환영합니다. 사맛을 처음으로 찾은 한국 사람입니다. 알고 싶었으니까요, 사맛에 대해서, 특별히 그걸 만드는 사람에 대해서. 나는 피티 워모에서 만난 당신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2010년에 당신이 사맛을 방문하기 이전, 그러나 2009년부터 우리 전시장에 온 것을, 그래서 옷을 둘러지게 쳐다보고 무언가 곱씹어 생각하는 모습을 보고 있었으니까요. 카메라를 들고 분주히 피티 워모 장소들을 다니는 사람들과는 무언가 달라 보였어요. 심각한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이라고 믿었습니다. 비즈니스보다 복식을 배우는 사람이라고 하는 게 옳겠죠. 알면 알수록 모르는 게 더 많아지는 이 역설을 이탈리아에 올수록 더 체감하니까요.

세상은 점점 가벼워지고 있습니다. 옷도 결혼도 사람들의 관계도 모두, 하지만 항상 진지하게 생각해야 할 문제가 있어요.

저도 원래는 사맛을 잘 몰랐기 때문에 그 옷 속에 담긴 철학이나 생각들을 순전히 유추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터넷에 나온 내용은 내가 경험한 게 아니라 정확하게 말하기도 어려웠고요. 무엇보다 사맛이라는 이름부터 독특하잖아요.

체스(Giocco Scacchi) 게임 알지요? 사맛은 스키코 마토(Scacco Matto)에서 유래한 말인데 영어로 하면 장군(Check mate)이란 뜻입니다. 무언가 새로운 선언을 한다는 느낌으로 만든 이름입니다. 최근의 패션 시장은 퀄리티보다는 트렌드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나 철학이 다른 브랜드들 간에도 잘 구별되지 않고 서로 비슷한 컬러와 스타일로 가득합니다. 우리는 그런 흐름과는 뭔가 확연하게 다른 사르토가 되고 싶었습니다. 전통적인 사르토는 오래도록 한 테이블에서 바느질하고 재단해왔기 때문에 균등한 옷을 만드는 실력은 훌륭하지만, 새로운 스타일링에 대한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이 쉽지 않아요. 이를테면 고객이 일반적이지만은 디테일에 대한 요청을 했을 경우 쉽게 작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당황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우리는 유연하고 창조적인 사르토가 되고 싶었어요. 한 분야에만 전문가가 아니라, 시야를 넓혀 어떠한 요청을 해도 제작할 수 있는 그런 사르토가 만드는 브랜드 말이지, 그게 사맛입니다.

"사맛은 체스 용어인데 영어로 말하자면 '장군'이란 뜻입니다. 무언가 새로운 선언을 한다는 느낌으로 만든 이름이에요."



발렌티노 리치는 양어섯 살 때부터 비몬토의 유명 사르토의 작업실에서 패턴을 경험하고 스타일과 디자인을 배우며 소재를 보는 눈도 길었다.

시장에 등장한 것으로 치자면 사맛의 역사가 아주 오래되지는 않았잖아요. 그런데도 매우 높은 수준의 수트를 제작하고, 이미지도 고급스럽잖아요. 혹시 당신은 천재입니까?

하하하. 우리가 어떻게 좋은 상품 없이 오늘과 같은 위치에 설 수 있었습니까. 나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사르토리야에 대한 본능적인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정확히 열여섯 살 때부터 비토니오에서 가장 유명한 사르토 마스터의 작업실에서 옷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배우고 경험을 시작했습니다. 거기서 패턴이라는 것을 경험하고, 스타일과 디자인을 믹스하는 방법에 대해 연구하며, 소재를 보는 눈을 길렀어요. 멋진 남자들이 입은 옷을 보면 항상 그것과 근접한 옷을 만들기 위해 생각하고 직접 만들어보기도 했습니다. 물론 그때의 나는 젊었고 대학 진학을 할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바리 법대에서 공부했고, 1995년 졸업 후 2년간 법률 회사에서 실무 경험도 했죠. 그 다음엔 내 이름을 건 법률사무소를 열었어요.

거 봐요, 천재 맞잖아요.

하하하. 그래도 대학 공부와 변호사 경력에도 사르토리야에 대한 열정만은 사라지지 않더군요. 하지만 변호사에서 사르토리야는 전혀 다른 업종으로 전환한 데는 어떤 계기가 있었을 법합니다만, 어릴 때부터 사르토리야에 익숙했던 것처럼, 변호사를 하면서도 나는 항상 사르토에게 수트를 맞춰 입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 뒤에 나는 누구에게 어떤 옷을 주문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그런데 문득,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까'라는 의문이 들었어요. 나에게 규격화된 옷을 강요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 개성대로, 내 의도대로 수트와 재킷을 제작해주는 사르토리야가 있어야 하지 않나 싶었던

거죠. 나는 법률사무소에서 일했기 때문에 고객의 예기를 잘 들을 줄 알았고, 그들의 요구를 해결하기 위해 조인하고 도와주는 데 익숙했습니다. 더불어 아내 살바나의 강한 권유로 2002년도에 사맛이라는 브랜드를 설립했고 고객이 원하는 그 무엇도 가능한 옷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함께 일하고 있는 것이군요.

살바나는 사르토에 대한 열정을 언젠간 내가 실현시키려라는 걸 잘 알고 있었어요. 그녀는 내게 자신감을 불어 넣어주고 흔들리지 않는 지지를 말해주었어요. 여기에 나의 동업자이자 어릴 적 친구인 피로 그리고 동생 니콜라가 함께 사맛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아내는 관리와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을 담당하고 있고, 사맛의 여성 라인 개발에도 참여하고 있어요. 니콜라는 크리에이티브 파트, 커머셜 파트 그리고 유통마케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사맛의 특성에 대해서 한 번 단도직입적으로 질문을 드려볼까요. 니콜라와 어떻게 다릅니까.

이탈리아에는 니콜라와 피렌체와 로마와 밀라노의 수트가 각각 존재하지만, 모두 전혀 다른 옷이란 말이예요. 유명도에 따라 옷의 품질이 달라지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수준 있는 사르토리야가 니콜라에만 있는 건 아니라는 말이 되죠. 아직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사맛과 같은 풀리아(Puglia)-Pugliese) 사르토리야는 감각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획기적이지만 절대 클래식의 도를 넘지 않는 옷을 만들어줍니다. 럭셔리와 전통과 현대적인 스타일을 믹스한 것이죠.

당신의 가슴속에서 생물처럼 계속 영감을 자아내는

어떤 시대가 있겠조? 남자들이 우아했던 시대.

1900년대 세상은 천천히 흘러가고, 친절하며 매력적인 사람들이 사회를 건강하게 구성하고, 사람들은

아름다움을 알았습니다. 그 멋진 사회에서는 모두들 사르토를 신뢰했습니다. 사르토는 이 세계에서 사람들이 열망하는 것을 실현해주는 마법사라고 같았으니까요. 확실히 당시의 남성들은 명확한 틀에 의해서 정교한 스타일을 표현할 줄 알았어요. 예복을 입으면서 모자와 지팡이를 잊지 않았고, 수트를 장갑처럼 몸의 일부로 만들 줄 알았으니까요. 사르토들이 일하는 방식에도 거짓과 인스턴트식 작업은 절대로 없었습니다. 핸드메이드는 순고한 것이니까. 우리는 그 전통을 계승하고 있고, 지금부터 100년 후의 풀리에제(Pugliese) 사르토리야도 같은 방식으로 고객을 맞이할 것입니다.

발렌티노 리치, 당신이 표현하는 스타일은 어떤 전제를 가지고 있습니까.

나는 원저 공의 스타일에 오래도록 감명을 받았습니. 영국의 귀족을 넘어 궁극의 신사가 표현할 수 있는 어떤 정점을 표현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영국식 전통에 풀리에제 사르토리야의 자유로움과 에너지가 결합한 스타일이 내 머릿속에 있습니다. 매일 입는 옷이지만, 나는 단 한순간도 생각 없이 선택하지 않습니다. 포멀한 수트, 자기주장이 강한 재킷은 물론이고 레저 스타일을 표현하는 소재를 집중적으로 입는 날이 있고, 새 패턴의 풍성한 셔츠와 단합을 한 아홉 코어 형비지를 입을 때도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들이 그토록 오랫동안 숙고해온 그 주제, 즉 남자에게 수트란 과연 무엇입니까.

수트는 간단하지 않습니다. 카리스마와 명성 그리고 사람의 매력에 대한 문제입니다. 수트를 사랑하는 사람은 자신을 현명하게 표현하고, 주변의 관계를 규정하여 나아가 어린 아이같이 되는 운명을 가지게 합니다. 그러나 나는 클래스(class)가 캐릭터와 결합되는 것이 최선의 룩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발렌티노 리치는 매일 VIP 고객을 대상으로 맞춤 행사를 진행한다. 그때는 발렌티노 리치라는 100% 핸드메이드 비스코프 방식의 브랜드로 진행한다. 사맛은 국소왕의 기계 작업을 통해 생산 속도를 높인 브랜드다.





⑤ 이탈리아의 럭셔리 브랜드를 이해하려면 어떤 관계의 어떤 사람들이 만들고 있는지 알아야 한다. 1 발렌티노 리치의 니콜리 리치 형제 2 사탕의 여성 라인 개발에도 참여하는 발렌티노의 아내 살루니, 3 니콜리 리치는 크로아티아와 카바벌 파트를 담당한다. 4 발렌티노의 동료이자 오랜 친구 피외오르네.

나는 피아트와 회장이었던 자이나 아셀리의 수트를 제작한 적이 있습니다. 몸의 사이즈를 재가만 하고 바로 재단을 시작한 게 아니라, 그가 진정 입고 싶었던 옷이 무엇이었는지, 주머니에 어떤 손을 넣는 습관이 있는지, 소매를 드는 제스처는 어떤지 등 전체적인 움직임과 캐릭터에 대해 깊이 연구한 후에 제작했습니다. 그 결과 캐리σμα 있고 다이내믹한, 개성이 있지만 부드러운, 그래서 모험 가득한 그의 하루 일과를 고스란히 옷 속에 담고 있는 아름다운 더블 브레스트드 수트가 탄생되었습니다. 결국 수트란 자신의 실과 캐릭터가 절묘하게 결합하면서 자신만의 의사를 전달하는 도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를 가진 수트도 항상 변화하고 발전하는 것이 온당하지 않았습니까. 그 변화의 범위가 몹시 어려운 문제이긴 하지만,

우리는 타인으로부터 자신을 구별할 때 그의 재산이나 현상이 아닌, 자신의 행동과 태도를 통해 구분합니다. 그 태도는 누구에게 보이기 위한보단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 행해지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만드는 옷이 얼마나 깊은 뜻을 가지고 있는지 깨달았고, 계속 진화하도록 노력합니다. 지금의 우리를 존재하게 만들어준 사르토에 대한 존경을 바탕으로 과거에 대한 현대적인 재해석을 하고, 현대적인 고객에 맞는 스타일을 창조하는 연습을 꾸준히 반복합니다.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현대적인 흐름에서 도태되지 않으려면 스타일과 패션을 계속 공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혼자서 않은 번티지 소재에 아주 다양한 디테일을 곳곳에 요청한 당신의 맞춤복도 우리에게 큰 공부인 셈입니다. 발렌티노 리치라는 브랜드와 사탕이라는 브랜드 두 개를 보유하고 있었어요. 차이점이 있다면, 당신도 수미주라를 하니 차이점을 쉽게 납득할 겁니다. 우리는 매일 초에 밀라노의 그랜드 호텔에서 VP 고객들을 모시고 맞춤 행사를 진행합니다. 그때는 발렌티노 리치라는 비스포크 방식의 브랜드로 진행해요. 즉 발렌티노 리치는 100% 핸드메이드로 진행되는 비스포크 라인이고, 사탕은 약 80% 정도의

핸드메이드 작업으로 조금 더 빠르게 생산하는 라인인 것이죠. 그러 봐야 우리 사르토리아는 하루에 두 벌만 생산하는 곳이긴 하지만.

결국 작업시간의 차이라는 말씀이시군요.
발렌티노 리치는 100% 핸드메이드로 중간 단계 없이 바로 고객과 일대일로 진행하는 완전한 맞춤복을 말합니다. 사탕은 란스미어 같은 바이어에 판매하기 위해 극소량의 기계 작업을 통해 생산의 스피드를 높인 브랜드라는 것이죠. 이를테면 재킷의 주머니 작업은 핸드메이드도 가능하고 기계 작업도 가능합니다. 손으로 작업하면 1시간 반이 소요되고, 기계로 작업하면 30분에 끝납니다. 옷의 착용감에 전혀 지장을 주지 않는 부분에서만 그렇게 시간을 단축한 것이죠. 원래 우리가 시작한 발렌티노 리치는 정말로 100% 핸드메이드로 만드는 옷입니다. 우리는 진심이 담긴 옷을 보여주고 싶으니까요. 하지만 우리가 조금씩

작고 아담한 사르토리아지만, 이곳에 계신 분들이 제게 직접 설명도 해주시고 제가 오더한 옷도 보여주시고 해서 오늘 참 행복했습니다.

하하하, 우리 사르토리아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당신의 방문을 아주 기뻐하고 있어요. 이들은 자신이 하는 일에 큰 책임을 느끼면서 일하는데, 일의 결과를 직접 고객에게 보여줄 수 있으니까요. 며칠 전에 내가 한국에서 온 당신이 방문할 것이라고 알려줬거든요. 그랬더니 오늘 머리 세팅도 하고 평소보다 웃을 아주 신경 써서 예쁘게 입고 왔단 말예요. 그들은 제작되는 각각의 오더에 붙은 클라이언트의 이름을 거의 다 알아요. 그래서 누구를 위해서 자신이 노력하는지 알고 일하는 것일겁니다. 이제 당신의 얼굴을 직접 보았으니, 이제 당신 오더엔 더 즐겁게 일하겠죠.

하하하, 그분들을 더 비쁘게 만들어드리고 싶군요. 아직 우리는 한 번도 한국의 파트너와 일할

“나는 원저 공의 스타일에 감명을 받았습니다. 궁극의 신사가 표현할 수 있는 어떤 정점을 표현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영국식 전통에 풀리에제 사르토리아의 자유로움과 에너지를 결합한 스타일이 내 머리에 있습니다.”

알려지면서 시장은 더 많은 수량을 요구했지요. 그래서 작업시간을 줄인 사탕이라는 브랜드를 통해 시장에 대응했습니다. 하지만 본질은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는 거짓을 말하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아요. 투명한 유리잔이 되고 싶습니다.

핸드메이드를 존중하는 시장이 작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장의 부침을 이겨내기가 어려웠을 텐데요.
당신도 같은 고난을 하는 것이죠? 말 안 해도 알아요. 어렵지만 저희가 이 일을 계속하는 건, 사탕만의 열정을 지켜내기 위해서입니다. 그 정신을 잃기 싫어서입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이 쉽게 만나고 헤어지기를 반복하는 건 인내심이 없기도 하고 사내가 그렇기도 하지만, 결국엔 자신을 지탱하는 정신이 없기 때문이에요. 자신이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그러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를 알지 못하는 거죠.

기회가 없었습니다. 당신이 우리를 발견하고 여기 사르토리아까지 찾아준 건 정말 놀라운 경험이었고 비교할 수 없는 즐거움이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당신은 친절하고, 매너가 좋으며, 정확하고, 뛰어난 관찰력의 소유자여, 의욕적이고 스스로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당신과 즐겁게 일하고 싶고, 훌륭한 관계를 오래도록 맺고 싶어요. 그리고 사탕을 기다리는 한국의 고객들에게 그들이 기다리는 것 이상의 것을 제공해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사탕과 오래도록 속 깊은 관계를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웃은 그것을 만드는 사람을 직접 만나봐야 알 수 있는 것이네요. 정말로 그렇죠, 이제 당배 따워도 되나요? 하하, 인터뷰, 글 발송(란스미어 브랜드 에너지)